

설교제목 :사도의 자랑 (3) [고린도후서 강해 19강]

설교본문 :고린도후서 12:1-10

설교날짜 :2020. 07. 26 [주일 1부 예배]

서론

우리는 11장부터 '사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랑이라는 것은 11장부터가 아니라 사실 고린도후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도의 변명', '누가 진짜 사도냐?' 이것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열방 교회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것이 아주 분명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조직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런 조직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형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은, 에누리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이 열방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야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허망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도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는데 구원을 지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나? 그 사람은 결코 영화로움이나 영광이라는 것은 갖지 못하고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당신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르심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예정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열방 교회를 떠난다, 열방 교회를 떠나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증거는 무엇이나? 그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흘러야 합니다. 진리가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OO이의 몸에 바늘을 찔렀다가 빼면 무엇이 흐를까요? 피가 나옵니다. 혹시 콜라 나오는 것 아냐? 우리는 그것을 '콜라 맨~'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가 흐릅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흐

르지 않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 운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리가 교회를 이루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에스겔 36장 26절의 예언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안에는 진리가 흘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지서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이천 년 전에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천주교라는 놈이 마치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이천 년의 시간을 계속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사기꾼이고 더군다나 우상 숭배자이고 태양 숭배자이고 잡신입니다. 바티칸에 가보면 온 세계의 잡신은 다 갈다가 모아 났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들입니까?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천 년 동안 진리가 타락하면서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숨겨놓은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진짜 교회가 이천 년의 기독교의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모라비안 교도 같은 사람들, 역사 속에 등장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이천 년의 기독교는 남은 자들, 진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이천 년의 흐름들을 이제까지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 이천 년 동안 이끌고 왔던 진짜 교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전통, 사도들이 초대 교회에 세워뒀던 그 진리의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나? 이천 년 동안 그 천주교를 통해서 훼손된 진리의 흐름을 가지고 모두 마치 그것이 교회인양 속아서 "우리의 모교회다." 이제까지 왔고, 심지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진리의 흐름의 오염됨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도 않고 "야,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다. 천주교로부터 분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전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천주교에서 나온 것뿐입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 2호점이 생긴 것뿐입니다. 그래서 전혀 교회는 그렇게 종교혁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런 교회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흐름대로 지금도 이 현대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전부 조직이 되고 마는 이유는 그 핵심이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가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영광스런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 사도의 전통을 회복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음녀들이 이 시대 교회들에게 승리를 선포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칩을 꽂아놓고 진리 자체를 막아 버립니다. 생명 자체를 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죽는다는 것을 애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만 모르지 귀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날프고 보잘 것 없는 이 열방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면 반응이 딱 두 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는 뛰쳐나가야 합니다. "야, 이것 나 못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한 것입니다. 저도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진사팀도 불쌍한데, 제가 순교팀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목숨 걸든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이 열방 교회에 되는데로 어중이떠중이 그런 모습으로 열방 교회에 그냥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겠

지?" 이것 정말 목숨 걸 일이다. 그만한 전쟁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도 영적으로도 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살 길이 없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숨 걸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여기 열방 교회에서 어중이떠중이 세상도 좋고 그냥 이렇게 살고 덜렁거리면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도대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렁거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가 아무리 길어 봐야 3시간내지 4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아, 우리 열방 교회에 선포된 말씀이 진리다. 우리는 진리에 목숨 걸어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 교회만 준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라면 누구나 이 진리 사수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합니다. 단지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이것을 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이방인 교회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진리를 세웠고 이 진리를 훼손하는 고린도 교회를 박살낼 수밖에 없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울은 바울 시대 때 혼자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환경이었지만, 우리는 우리 시대 때 우리가 혼자 할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대도 마치 바울이 존재했던 시대처럼 꼭 우리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만 할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해줬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이 코딱지보다 조금 큰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사부 때문에 존재합니까? 사람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 회사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총무부, 잡다한 일을 하려고 존재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부도 있고 인사부도 있고 기획부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복음의 장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을 팔아야 합니다. 진리를 팔아야 합니다. 그러니 진리를 팔기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기도도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복음에 대한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장사, 복음 장사를 합니다. 복음 장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잘 팔아야 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이 복음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서 있지 않으면 다 무산되는 일입니다. 진리가 훼손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만큼 고린도후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큰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진리를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그냥 열방 교회에 있는 사실이 덜렁거리고 있어야될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것이 시대적으로 그런 시간이 점점점 조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그 진리를 선택해서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종교 통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나는 목숨 건다." 그리고 진리 편에 서야 되는 이 결정을 해야될 시간이 곧 속속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이것저것 덜렁거리고 다니다가는 그런 사람은 백 퍼센트 종교

통합의 편에 서서 “나는 열방 교회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자기 생존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열방 교회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지 않는 것뿐더러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괜히 그러다가 열방 교회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네들 진짜다. 진짜. 저것 수상하다.” 그리고 고발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나 알고 세상 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아직도 맨날 세상에 빠져서 덜렁거리는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맨날 인터넷 들어가서 세상이나 빠져서, 요즘 또 웹툰이 문제가 됩니다. 웹툰 하는 사람들은 눈을 파버려야 합니다. 웹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귀신들이 얼마큼 간악하냐? 여러분이 듣는 음악, 그것을 그냥 들으면 그것이 나쁜 음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영을 죽이는 칩을 심어놓습니다. 그게 옛날에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There comes a time when we need a certain call When the world...’ ‘We are the World’, 거기에 보면 복음을 훼손시키는 말의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들을 죽입니다. 이 시대는 가사가 아니라 리듬 속에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영을 혼란시킵니다. 웹툰, 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재미 있어서 보는데 그 영을 죽이는 칩들을 그 만화 속에 집어넣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분별 없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은 보지 않으면 그렇게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 다 숨어 있어서 영이 멍청하게 됩니다.

11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내가 왜 자랑하느냐?’ 변명이 나와 있고, 22절부터 12장 10절까지 여섯 가지 자랑을 합니다. 지난주에 11장 33절까지 네 가지 자랑을 끝냈고 오늘 12장 1-4절까지 다섯 번째 자랑 그리고 5-10절까지 여섯 번째 자랑을 하고 대단위의 사도 바울의 자랑을 마치겠습니다.

본론

1-4절 다섯 번째 자랑, ‘나는 영적 체험을 했다.’ 자기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이런 말들, 지금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겸손하게, 또 심각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까? 이것은 자랑이라는 육적인 것들을 하기를 원치 않는데 해야되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사실 앞에서 봤지만 바울이 육적 자랑을 하기는 하지만 육적 자랑이라는 게 자기 명예나 자기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한 독약을 써서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자랑 자체를 하는 것을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되는데로 육으로 말하고 육으로 보고 모든 것을 육체를 방임한 상태에서 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바울은 계속 이런 식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대단합니다. 바울은 이런 게 대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심지어

설교를 잘한다, 말발이 세면 설교 잘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사람들이 볼 때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땡땡!” 그러지만 일반 청중들은 모릅니다. 말발 세면 “야, 저 사람 설교 잘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것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바울이 위대한 사도냐? 바로 이런 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어떤 육적인 말을 0.001 퍼센트 섞어서 육적인 말을 했는데도 그 0.001 퍼센트의 영향력이 어떤 연약한 성도에게는 좋지않는 영향을 미쳐서 바울 자신에게 그 사람이 집중할까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야, 이런 게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에 대한 신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것은 이런 어떤 종류의 자랑도 그 자체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도 압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까먹는 일이고 좋지 않는 결과가 납니다. 물론 바울은 앞에서 말했지만, 자랑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랑이라는 자체가 본래적으로 원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힘이 어느 정도 가입되었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자랑이라는 것은 유익하지 않는 일들을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만사를 제쳐 놓고 지금 자랑이라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도 별로 바울은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예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지금도 말했지만, 독약을 써서라도 교회를 살리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을 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 자체는 영적 체험 자체, 자랑 자체가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말했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고 또 우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영적 체험을 자랑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으면 서도 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자랑합니다. 소위 말하는 간증, 자기의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없이 주관성으로 돌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증의 위험이 그것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민하게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진리의 측면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지만 간증이라는 것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전혀 진리의 객관성이 없이 자기 주관성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 초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갑니다. 그 사람을 지나치게 위대하게 본다거나, 지나치게 거룩하게 본다거나, 이런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옛날에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도 잘한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잘했는데 지금은 뺑구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했어.”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So What?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안해 본 사람 있습니까? 항상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야, 너 장가 좀 가야지?” 그러면 “나 옛날에 정말 기가 막힌 애인 있었어.” 지금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왜 못

갑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다분히 과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현재형이신 하나님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오만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로 보면 간증 뻑적지근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몇 년 지나고 나서 타락한 사람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간증이라는 게 주관성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알게 됩니까? “아, 어느 날 꿈을 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겿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처럼 기도하라고 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뒷동산에 올랐다.” 그래서 So What?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꿈꾸다가 겿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뒷동산에 오른 것과 상관관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꿈이라는 게 개꿈은 항상 논리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것을 수시로 올귀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간증 이런 게 결국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관계가 아니라 임재입니다. 내재라는 것은 항상 진리가 내 안에 있고 그 진리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다스려가는 이 객관성이 항상 신앙생활에는 있어야 합니다. 삶이라는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삶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증의 조건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았구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은 날마다 개차반으로 살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내가 열방 교회에 다닌다고...”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다가 나간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꽤 많았습니다. “김 민호 목사님 제자다.”고. 저는 한 번도 개를 제자로 여겨 본적이 없는데 자기는 저의 제자라고 돌아다니면서 제 이름을 먹칠한, 제 이름을 먹칠한 것은 별로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제발 돌아다니면서 저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자다운 삶을 살아주세요. PC방 가서 또 목사님 제자라고 그러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주관적인 간증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사람에게 걸리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지나치게 거룩한 사람으로 띄웁니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일단 환상이 임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환상에는 주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상을 봤는데 주님의 계시가 없다, 그러면 그 환상은 주님이 주지 않은 환상입니다. 아니면 해석을 잘못했던가. 환상은 반드시 예언의 측면에 속한 것인데 그 예언을 해석하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그것이 어떤 환상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Reveal,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해석해 주기도 하고 주님이 그 환상을 해석하는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신약에서는 그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계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미이냐? 오늘 환상과 계시가 복수인 것으로 봐서 바울에게는 많은 환상과 계시가 있었으나 오늘 하나만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계시란 무엇이냐? 12장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일단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말씀하심도 계시입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주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 틀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가 틀린 것입니다. 성령은 제 3위이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 2위이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립니까? 성령이 말씀하심은 내 안에서 파장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심은 청각

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청각으로 듣습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12장 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에게 계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말했고, 그 비밀이 드러날 때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 그 자체가 'Reveal', '드러났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의 비밀을 드러난다.' 그래서 그 영광에는 풍성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비밀이 드러나는 측면을 바울은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교회에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다 오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갖는 지혜와 계시, 이것 다 에베소 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교회는 근본적으로 지혜와 계시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수시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청각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가 교회라면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지혜와 계시를 듣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하나 우리가 볼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는데 4절까지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초대 교회와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용어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정리가 바울 시대 때는 이런 모든 일들을 '환상'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이 시대 이것을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입신'이라고 말합니다. '입신'을 또 우리는 '영광의 임재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나 입신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안수받으면 입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강력하게 들어가냐, 천차만별 여러 가지로 틀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1.5볼트짜리 전기 충격받듯이 툭 하고 쓰러졌다가 툭 하고 일어납니다. 충격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방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격이 클수록 전인격적인 새로운 변화가... 옛날에 덴버에서 집회할 때 어떤 자매는 집회가 끝났는데도 바닥에 붙어서 못 일어나서 거의 밤새도록 누워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초입까지는 안수하면 입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때는 충격이 1.5볼트짜리 전기가 아니라 120볼트, 어떨 때는 500볼트, 1000볼트 짜리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이것을 '입신', '임재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틀릴 뿐이지 바울 시대는 이것을 다 환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기법이었고 사도들은 이 환상을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봤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게도냐에서 "이리 와~" 하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또 환상하면 베드로 사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나 이런 것 안 먹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생각할 때 해석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여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상황을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아, 고넬료의 집에서 부른, 그때 이 환상이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환상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아닌 것입니다. 개꿈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계시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남녀 종에게 환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는 사도보다는 선지자가 숫자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실지로 사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세우는 과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사도로 세우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두가 다 나가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으셨기 때문에 온 것인데, 하여간 견뎌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시키는, '도키마조'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련하다', 쇠를 정련해서 순수합금을 만드는 시간, 이 시간이 바울은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가는 과정이지만 저도 13년이 걸렸습니다. 사도들은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무조건 세워놓고 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는 반드시 과정이 있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집회 있다, 그러면 저는 에베소서를 지금도 수백 번을 강해했는데 집회 때마다 또 봐야 합니다. 왜? 또 계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수백 번 했는데 또 봐야 합니다. 왜? 또 다른 계시가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게 아닙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내일 사모님이 섭니다. 사모님 준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냥 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서기만 하면 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좋기는 좋습니다. 선지자는 서면 된다. 사도는 굴러야 된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도 자랑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있어서 그 자랑을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부터 해결을 하면, 지금 편지가 AD 55년에 쓰였다고 했기 때문에 AD 41년입니다. 바울이 27년에 다메섹에서 거꾸러졌다고 생각한다면 44년경에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의 훈련을 마치는 것입니다. 41년이라면 바울의 아라비아 사막 훈련의 절정기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앞에 보면,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바울이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지무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사용한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AD 41년경에 말한 것은 생명교류가 절정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을 십여 년 동안 계속 지키는 과정 가운데 이 절정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경험들, 체험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신비한 체험의 공로가 있느냐, 아니면 노력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수 있느냐?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생판 기도하지 않고 생판 세상으로 늘상 그렇게 살고 그런 놈한테 갑자기 이렇게 삼천 층을 보여줬다, 그러면 그 사람 갔다 와서 톨아이가 됩니다. 그러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오늘 그 절정의 시간 속에서 준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편 40편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그리 많소이다.' 다윗이 그냥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을 하나님께로 열어놓고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된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전혀 없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을 열어놓고 하나님으로 산 적이 있습니까? 매일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놈들이 무슨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뭐 그렇게 많은 줄 알겠습니까? 그냥 "있겠지." 짐짓. 벌써 바울,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의 삶과 우리가 벌써 여기서 빛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나 이 놀라운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자질적으로 우리보다 특별히 뛰어나거나 특별히 위대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사람은 다, 인간들은 다 도찐개찐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천재는 99 퍼센트의 노력과 1 퍼센트의 자질'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 퍼센트의 노력과 99 퍼센트의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99 퍼센트의 은혜로 만드는데 1 퍼센트의 집중력,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1 퍼센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런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갖게 하십니다.

셋째 하늘 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당시 헬라 세계의 우주관에 근거해서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교회였다면 에녹서의 표현대로 '7천 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 문헌에는 '10천 층',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7천 층이 되었든 10천 층이 되었든 헬라 세계이기 때문에 3천 층,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3천 층이라는 것은, 1천 층은 어디까지입니까? 대기권까지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를 2천 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기권 밖에 있는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3천 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천 층, 2천 층, 3천 층을 헬라 세계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지로 그런 하늘의 관계성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그런 하늘의 관계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우주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주 밖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표현했느냐? 바로 유기적 관계, 1천 층, 2천 층, 3천 층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가 모두 다 하나의 관계성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천 층 따로 움직이고, 2천 층 따로 움직이고, 3천 층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차원들은 함께, 마치 3차원은 2차원을 2차원은 1차원을 지배하면서 이 차원은 다 하나로 연결되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원이 2차원을 초월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2차원이 3차원 초월합니까, 못합니까? 3차원이 4차원을 초월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똑 같습니다. 인간의 과학의 노력을 통해서 1차원을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유기적인 관계에서 초월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초월시키는 교만함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신들이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인간까지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분해까지 합니다.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2천 층을 초월해도 3천 층은 초월합니까, 못합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부터 부산 간다, 그랬는데 지금 집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내가 부산 가는데 집 앞에 나서는 정도,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

다. 지금 기껏해야 태양계? 태양계 끝에 밖에 못 갑니다. 태양계 끝이라는 것이 집 앞에 문에 나서는 것도 사실 비유도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5백억광 년이래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지가 똑똑한 척 해보아 별 볼일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 이 유기적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지구의 어떤 단일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와의 관계, 3천층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나 하나의 관계가 전부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니까, 안 됩니까? 지금 분리 안 됩니다. 시간이 가면 공간도 같이 가야 하고 다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 3차원의 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그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관심도 없습니까? 관심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갔다. 그러면 주님과 사는데 제가 백만 전쯤의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그 즐거웠던 일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 세계는 다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또 백만 년 미래 앞으로 가서 좀 백만 년 후에는 내 모습이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가고 싶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 그분이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나 혼자 거기서 백만 전에 가봐야 뭐하고 백만 년 후에 가면 뭐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는 모든 것이 그분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면 시간도 공간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무시간이 아닙니다. 무공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과 공간은 그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계는 그분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날 수도 있겠지만, 떠날 필요가 없고 떠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계속 영광스런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임한 이 영광의 임재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세계가 우리에게 몰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다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그 3차원의 세계는, 하나님의 공간은 이 3차원의 세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그분의 관계 속에서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기노스코'라고 했습니다. 왜 영생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백만 년, 오백만 년, 억광년, 이게 영생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에 그곳에 계심으로 시간이 결정되고 공간이 결정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초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 3차원의 세계에서 살지만 이 땅의 물리적인 시간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영생에 산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때 벌써 영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분과 떨어져 있지 않는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호라', 헬라 말로 '호라'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도 시작되었는데. 실지로 바울이 17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절정에 이르는 시간 속에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

다. 그것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주님의 세계 가운데 항상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분께 초점을 맞춰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만을 생각하라.'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공간의 세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차원의 시간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관계성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뭐 좀 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겠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성, 그분을 향한 방향성, 그분의 임재 속에 있는 시간,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해체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계속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신, 임재라고 말할 때 우리가 떠나서 그 공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져서 그 공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공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새벽에도 계속 그 공간이 저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인격의 초점을 그분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 생각, 지 뜻, 지 비전, 지 계획, 지 목표 전부 지 생각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시간, 공간 속에서 늘 혼자 존재합니다. 그러니 원수가 마음놓도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임재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있는 3차원의 공간의 세계와 분리된 공간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차원의 세계, 이것을 3천 층이라고 말합니다. 이 3천 층의 모든 세계는 이 우주와 1천 층에 있는 모든 우리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만물을 붙잡고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랬으면 태양이 멈춘 것입니까? 원래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전 솔라시스템, 전 솔라시스템이 멈춘 것은 전 우주가 멈춘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향을 준 것입니까? 3천 층의 영향력으로 선 것입니다. 이 모든 3천 층과 이 세계는 다 하나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극에 눈이 녹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방귀(fart)를 많이 뀌어서입니다. CO2가 많아서 그렇다면서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인간이 방귀 좀 뀌다고 빙하가 녹을까요? 그것 속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구의 현상은 3천 층, 그리고 나가서 우주의 모든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한 전주곡일 뿐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기후 변화라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후 변화라는 것을 통해서 한 나라의 경제를 마음대로 컨트롤 하는 것입니다. "CO2를 너는 이만큼만 생산해라." "너는 이만큼만 생산해라"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CO2를 마음대로 막 써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망할 놈의 지구, 마음대로 더럽혀도 괜찮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망가질 지구, 쓰레기 좀 버리고 마음대로 더럽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그렇게 함부로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중에 천년 동안 더 사용할 것인데, 그때 쓰레기 우리가 치우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것,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분을 끌어당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2차원 세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3천 층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

는 분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분의 통치 안에 공간 속에, 시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호라',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산다는 것이 1년, 2년, 백 살, 이백 살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백 살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 속에서 살면 말장 도루묵이고, 그러나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있으면 그것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런 시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꾸만 그 세계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끌려 간 자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가 부활하여 공중에 이끌림받았다고 쓴 말, '들림받았다.', 그것과 똑같은 헬라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14년 전의 체험이 들림받은 체험과 똑같은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림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울 생애에 처음으로 아니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진짜 모른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입신입니다. 입신인데, 우리가 입신이라고 말할 때 몸이 영과 분리되지 않는 입신, 혹은 영이 분리된 입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했지만 대부분의 입신은 영이 분리되지 않는 입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영이 분리됐다, 안 됐다? 분리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 '이끌려 갔다.'는 말 자체도 증거지만, 낙원은 몸과 영혼이 분리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3천 층 어딘가에 있는 낙원, 파라다이스, 그 파라다이스에 갔다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몸과 영혼이 분리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영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입신이라는 것은, 임재에 들어간다는 것은 몸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공간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했지만, 얼마만큼 강력한 그 임재가 나에게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말했지만 여러분은 1.5볼트의 충격을 받아서 안수받고 넘어졌다가 즉시 일어납니다. 그것은 1.5볼트의 충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엄청난 임재가 몰려온 것입니다.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다니엘에게 임했는지 잠이 드는 것처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강력한 임재가 오면 한 백만 볼트의 충격이 온 것입니다. 백만 볼트의 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몸에 영과 지정의의 몸의 기능들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마비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충격적으로 임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받은 것의 한 30 프로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약간 지정의의 기능이 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이 새끼 맨날 임재만 들어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욱하면 안 됩니다. 충격이 약하

기 때문에 다 듣습니다. 또 다니엘 1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충격적인 임재를 당하니까 자기 몸이 완전히 거꾸러지고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임재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래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했지만 성령 충만, 다니엘처럼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공간을 끌어당기는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십니다.

일단 영이 분리되지 않는 입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스가랴 4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든 것처럼 된다.' 전부 선지자들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임재에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사실 임재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그 공간이, 그 임재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분리되는 입신에 들어가는 상태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몸이 실지로 죽어서 분리됐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 영이 돌아와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낙원에 갔다 온 것입니다.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헨리 구르버 목사님도 간증하는데 죽어서 태양계를 넘어설 때 딸이 기도하고 죽음의 영을 쫓으니까 태양계 가다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실지로 우리의 영은 죽으면 이 우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영이 분리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잡신적인 용어로 유체이탈(幽體離脫)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유체이탈을 하면 그 유체이탈을 통해서 영이 자기 몸 근처에서 맴돕니다. 멀리 갔다가 괜히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페낭에서도 자매 사역하는데 두 명이 제 눈앞에서 유체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왜 유체이탈을 하는 사람이 생기느냐?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충격 받을까봐, 어쨌든 유체이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잡신적인 사람이 유체이탈을 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흐름은 아닙니다. 바울처럼 거의 없는 경우지만, 이렇게 유체이탈을 시켜서 하나님의 낙원에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 왜 유체이탈을 시킬까요? 그것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바울에게 해야될 계시의 놀라운 비밀들을 말해주기가 힘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4절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몸을 가지고는 이 계시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체이탈을 시켜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 상황은 몸이 낙원까지 갔기 때문에 자기가 유체이탈이 되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자기 몸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몸에 들어와서 "내가 낙원에 갔었구나." 그때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모른다고 말한 것은 내가 내 몸에 있었는지 낙원에 간 상태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또 왜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헬라 세계의 이런 황홀경, 잠신, 유대의 신비주의, 또 영지주의의 신비주의, 이런 수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전부 유체이탈을 최고의 영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과 지금 섞이기 싫은 것입니다. 섞이기 싫어서 조심스럽게 '모른다.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낙원으로 간 것도 5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은 순교하면 순교하지만 죽지 않고 바로 부활해서 주님께로 가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왜? 낙원에 가 있는 것은 몸과 영이 분리된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낙원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낙원은 3천 층 어딘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3천 층 어디에 있겠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은 우리가 지금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가 왔다고 하는데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천국은 갈 수 없다기보다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백 퍼센트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해서 기도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상급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영광만큼 여러분의 집을 거기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집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거의 낙원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음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3천 층에 있을까요? 우리 집이 5백 층짜리 빌라인데 옆에 똥 푸는 장소가 같이 있다? 그러면 5백 층의 빌라의 값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러니 3천 층에 음부가 있을까요? 무저갱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옥은 어디에 있을까? 하여간 있습니다. 저도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음부는 어디인지는 압니다.

두 번째 자랑 5-10절, 몸의 가시와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자랑, 오늘 진짜로 해야될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5-10절까지 우리가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런 세계는 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 우리는 그 세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그 세계를 끌어당겨야 합니다. 우리가 유체이탈을 해서 거기로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계시를 들어야될 세대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다 고생바가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체이탈을 해서 우주를 지나서 거기를 갔다 오는 것이 장난입니까? 여기서 부산만 갔다 오는 것도 힘든데, 여행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유체이탈을 한번 하고 갔다오면 바울은 아마 1년은 몸조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고생바가지로 하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계시를 완성시켰는데 우리가 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유체이탈 이런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있습니다. 그것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체이탈해서 자기 몸을 보면 절망합니다. 그냥 사는 동안 사세요.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 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것도 3인칭으로 한 것은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겸손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아주 육적으로 사는 것을 쉽게 쉽게 살지만 바울은 결코,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공간을 계속 끌어당기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순간을 단 한 순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계속 민감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육을 방임하는 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큰 손실이라는 것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절대로 육의 방임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계속 이야기한 것이 내 육체에 십자가로 바리게이트를 쳐라. 그런 피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되는대로 핸드폰, 되는대로 웹툰, 되는대로 영화, 되는대로 세상, 전부 이런 것에 다 방임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 선생님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아주 자지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오약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오약질(외육질)하는데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약질이 아니라 그것들을 계속 먹습니다. 이것 불가능합니다. 바울 선생이 육적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는 전도할 이유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과의 관계성, 세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날 일도 바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을 대사도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육적으로 그렇게 쉽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 나는 다른 사람, 그렇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단지 다른 것은 하나님으로 산 결과이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결과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산 결과에 대해서 매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리고 어땠고,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나는 원래 이래.' 심지어 자기 존재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게 어딴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개 형상입니까? 여기 개 형상은 예배 못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개 형상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매일 딴 짓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핑계, 거짓 말입니다. 모두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민하지 않아서, 둔해서, "원래 나는 이래요." 원래 이런 게 어딴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해도 그만이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분, 창조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진정 자랑하기 원하는 것은 낙원에 갔던 그런 영광스런 존재가 아니라 사도로서의 실질적인 고난과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어." 이것을 자랑하는, 과거의 어느 체험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현재적인 삶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영의 사람들은 과거, 미래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현재형이신 하나님과 나아가는 이 초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신비한 경험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 없이 영광을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뒤에서도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분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내 인생의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백 퍼센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보상으로, 자기 영적인 실체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로 소화해라, 이런 말도 그냥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보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실체화시킨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 자체로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상이 되고 상급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고 유익이 되고 실체화가 되려면 고난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한 신비한 체험 그것 자체도 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상이 되려면, 그것이 너희들의 실체가 되려면 고난이라는 현재의 삶을 감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 그것은 목사님의 계시지 여러분의 계시는 아닙니다. 이 계시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기도해야 되고 그 실체를 위해서 엎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뭐든지 공짜로 먹으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바울이 굳이 내가 체험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14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놀라운 체험이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55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이렇게 영광스런 사도로서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물이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듣고 자기를 철저히 죽이는 작업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랑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체험, 그 선물 자체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준 영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로 나를 죽이는 작업 그리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기도로 소화하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교만함, 그 사람을 신비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의 존재의 영광을 깨닫고 엎드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경험한 신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죽이는 작업을 제가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신비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저를 1년 동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한동안 저는 신비주의로 들어갔었는데 그런 신비주의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목사님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목사님은 아마 신비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험도 저도 보통 경험을 했어야죠.

‘나도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보통 경험을 했어야죠.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끝났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경험이 있다 없다, 그 자체는 그렇게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영적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경험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영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과 얼굴을 자꾸만 대면하고 그분을 만나는 작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비한 체험은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 그래도 이렇게 살래. 너 죽인다.” 그래서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라는 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작업을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신비한 체험뿐만 아니라 삶은 모두가 다 그분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햇빛은 은혜가 아니고 공기는 은혜가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삶을 통해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 가치를 줬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고기를 한 근 먹었다, 한 근에 5만 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5만 원 냈으니까 내가 고기 한 근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소가 죽어가는 고통과 또 그 소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풀을 나게 하셨으며 그 소를 키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서 그 소를 키우고 그러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내가 대가를 치러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내 삶을 누리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말했지만, 육체적 자랑, 어떤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바울은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전혀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이제까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바울을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더군다나 헬라 세계의 영향 때문에 바울을 신적인 존재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이제까지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할까봐. 그런데 우리는 그것 바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 정도 있으면 한 백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다 그 원리에 의해서 삽니다. 여론, 광고, 여러분 잘 아는 맛집, 인터넷에서 어느 집이 인기 좋나? 그것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곳에 가서 저는 맛있게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짓됨입니다. 모두 거짓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타나는 것, 철저히 예수만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예수가 조금이라도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코미디언이 자기가 무명의 시절 때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디에 캐스팅됐느냐면 집에 “불이야!” 그러면 불이 나서 건물에서 사람이 뛰어나가는 것, 그 장면에 1, 2, 3으로 뽑힌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야!” 그러면 뛰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빨

리 제일 먼저 나가서 자기 얼굴을 카메라에 비춰 보이려고, 그러니 밀치고 먼저 나가서 카메라에 한 번 비치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컷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기를 나타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함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계시가 앞에서 복수라고 했습니다. 복수인 것으로 봐서 그것은 바울의 계시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계시,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처럼 바울의 계시를 해석하는 계시를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울은 모든 복음서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새롭게 계시를 받아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직접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계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게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직접 들었다.' 이 말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직방 계시입니다. 우리는 직방 계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사도이기 때문에 직방 계시는 없지만 우리 선지자들은 직방 계시가 있습니다. 서면 즉각 "할렐루야, 어떤 자매님 지금 머리에 아주 파스를 바른 것처럼 기름 부으심이 확 임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방 계시입니다. 이마가 파스 바른 것처럼 시원한 사람 없습니까? 저는 사도이기 때문에 틀리잖아요. 선지자는 이렇게 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풀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의 가시'인데 그것이 곧 사탄의 줄개들이 준 거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줄개들, 메신저 줄개들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뭐냐? 모릅니다.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줄개가 찔다는 사실을 근거할 때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치병이었고 그리고 그 가시는 24시간 내내 고통 속에 있는 거라기보다는 갑자기 확 드러나는 어떤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간질처럼,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또 깨어나고, 이러한 질병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원수, 귀신에 의해서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입니다. 아무나 자기에게 가시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가시는 3천 층 갔다 온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또, 시대의 대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보면 아무나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고 그러합니다. 손톱에 있는 가시는 뽑으면 됩니다. 가시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사도들, 어마어마한 계시, 그래서 그것이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강력한 고통이 엄습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는 나를 쳐서** '쳐서'라는 말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육체를 쳐서'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가시를 통해서 자기를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의 수난에 보면, '주먹으로 쳐서' 간수들이 주님을 칩니다. 그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받은 고난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정당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수난을 나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

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믿지 않는 놈은 믿지 않는 대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 마치 자기가 정당하게 누리고 살아야 될 존재라고 착각하는 경향성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그것을 누려야 할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많이 받을수록 많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인생이란 많이 뺏어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서 “그러면 나는 많이 받기 싫어. 안 받을래. 안 먹고 안싸지.”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한 많이 받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나는 모세 되기 싫어. 괜히 모세처럼 됐다가 말한 번 잘못해서 죽잖아.” 그 모세가 받은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좋으니까 모세가 본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죽고 사는 문제가 무슨 소용입니까? “모세가 본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어도 나는 좋겠다.” 그것은 영광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말했지만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어마어마한 계시, 3천 층에서 받은 전체 인류에 대한 모든 종말론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능력, 권세 그러니 바울이 조금만 빗나가면 금방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인생 끝내라.” 이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와서 당신과 영광스런 만남을 갖고 그렇게 살 사랑의 파트너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것을 주고 교만해서 쓰러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바울을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바울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그것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철저한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나라의 방식의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돈이 풍부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지 못합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의 머리를 가지고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회를,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주지 못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모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주지 않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저주인양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돼요.”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들 안에는 무슨 예수가 있는 것입니까? 힌두교 예수, 도대체 무슨 예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전능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으로 사는 것은 하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찮은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주님은 진짜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안 주실 것이 없습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울처럼 이런 가시를 갖든가. 여러분, 이 가시가 보통 가시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나 이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가지고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그 가시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시를 가지고도 크게 기뻐한다. 옛날에 이 막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으로도 계셨습니다. 이 막수 목사님이 저를 찾아온 것을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거지가 한 명 온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예쁜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거지 참 이상하네. 딸을 데리고 와." 그게 사모님인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캄보디아에서 중들과 맨날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귀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수 목사님한테 어떤 병이 걸렸느냐? 간과 심장에서 피가 역류하는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역류하면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큰 바늘이나 못 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막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 피가 한 30m씩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류된 피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버스 탔다가도 그러면 머리에 바늘을 찌르면 피가 짹 나오고, 사모님과 같이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거지가 온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가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막수 목사님이 죽을 맛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소문을 듣고 드디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흑~ 하고 안수 한번 하고 끝냈습니다. 이 막수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생명사역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봤을 때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웬 노숙자 거지가 찾아왔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가지고 바울은 그냥 산 것입니다. "괜찮다. 하나님이" 어만득한 한 사람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런 가시가 있어도 좋으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글썄요. 바울의 가시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그렇게 그 사랑과 영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것인가? 대답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 사랑이 뭘지 안다면. 저도 바울만한 영광과 계시가 임한다면 "하나님 좋습니다. 나도 가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세가 본 영광을 본다면 나는 당장 내일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 영광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는 목사입니다. 오래 살아야 맛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해야 합니다. 그 영광이 있으면 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어마어마한 신비, 이 놀라운 계시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가시라는 고난을 가져온 것입니까? 그것 자체는 아닙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계시와 능력을 받으면 이 가시가 오게 되어있구나."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시는 없지만 우리는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다.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그러니 크든 작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실존의 고난이 여러분을 쓰러 뜨리는 이유가 안 되는 것은 계속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능력, 그 계시 자체가 바울로 하여금 가시라는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고난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시는 아니지만 이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쥐서 여러분이 안 되는 꼴을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으면 돈 안 주니, 뭐 안 주니 불평불만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나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수단."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결핍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도 대체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능히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마저도 이 가시를 충분히 이기고 사는데 야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두 번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마치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셨듯이 바울도 세 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듣고 울어야 합니다. 벌써 수단과 목적에서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강박해서 울지도 않습니다. 귀신에게 많은 것들을 속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귀신에게 결정적인 속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것이 귀신에게 결정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계속 그분을 알아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이라는 바벨론에 사로잡히면서 그분을 이제까지, 지난주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힌두교 예수, 어떤 사람은 이슬람의 예수, 어떤 사람은 바알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지로 그 예수를 계속 그렇게 알아 왔어야 하는데 그 예수를 아는 것을 차단하고 미혹이 되다보니까 전부 이렇게 다른 예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그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 예수 믿으면서 그분이 나를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애들도 많고, 이런 것을 나쁜 말로 병신 꼴값한다고 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시는 하나님,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말은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속도 좋으십니다. 그런 말을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같으면 "때려쳐라 새끼야, 가라. 너 같은 것 필요 없다." 그럴 텐데, 그분은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속도 없으십니다. 도대체가 간을 빼놓고 사시는 분인지 어쩐지...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8절에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 했습니다. 간구한 것은 과거형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세 번을 주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세 번 간구하는 이 시점이라는 것은 주님과 바울의 신뢰성이라는 것은 보통 신뢰가 아닙니다. 세 번 간구했다는 것은 "안 됐으니까 세 번 했지." 아닙니다. 바울의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의 바울에 대한 신뢰 이것은 한번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네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역이 불가능하네요." 왜냐하면 가다가 어느 순간에 기절해서 쓰러지든지 고통스럽게 뒹굴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또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고통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공격당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신뢰성, 사도라는 신뢰성에 손실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매일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에게는 별로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이 바울을 향한 신뢰를 생각할 때 그분이 아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뢰를 잃지 않고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겔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처절한 고통은 제발 면해달라, 죽는 것은 죽겠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죽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고통, 이 신부의 값이 너무 비쌉니다. 내가 이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세 번 기도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얼굴을 외면하십니다. 그러니 세 번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 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외면당하는데 또 기도할 수 있는 바울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 기도했다면 우리는 천 번, 만 번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기도하다가 안 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즉시로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났든 간질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괜찮아요. 사도로서 이 복음을 가진 이 진리에 대한 훼손이 올라봐 두려워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신뢰성을 생각할 때 도저히 엄청난 충격입니다. 두 번째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드디어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하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바울이 말한 기도의 간구, 그것은 과거형인데 여기 **이르시기를** 는 현재 완료로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현재완료, 이것이 무슨 의미냐? 완료라는 것은 주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지를 말합니다. "안 돼! 됐어! 더 이상 기도하지마!" 이렇게 단호하게 지금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유, 그냥 한번 참아볼래.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지마! 더 이상 그 기도 하면 안 돼!”라고 단호하게 지금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과 이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바울은 그런 주님의 대답에 신뢰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바울의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주님의 신뢰, 바울이 아니면 이 가시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죽이든지 아니면 가시를 가지든지. 그런데 주님의 바울을 향한 신뢰는 이 가시를 그냥 주고 “기도하지마!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신뢰를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신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가시를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결국 가시라는 것은 은혜의 통로인데, [뒤에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능력의 통로인데 이 가시를 가지고 사는 만큼 그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고통보다 훨씬 큰 은혜의 분량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고통, 열을 줬습니다. 또 한 번의 고통입니다. 백이 됩니다. 또 한 번의 고통, 천이 됩니다. 또 한 번의 고통입니다. 만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성이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히 그 가시를 가지고 사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이 두 사람의 관계, 예수님과 바울의 이 어마어마한 신뢰성은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해 볼만 하잖아요?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통로가 돼서 그 은혜의 증폭이 계속 커지면서 바울의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주님의 바울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과 주님의 신뢰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런 관계였다면 이제는 생명을 의탁할 수 있는, 주님이 무슨 고난을 주고 어떤 것을 결정하셔도 0.001 퍼센트도 의심 없이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목적으로 사용한 섭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용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도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 속에서 계속 교제하면서 이러한 모든 바울이 족한 은혜,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여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거절은 주님의 기이한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가난을 계속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 속에서 주님과 그 가난을 껴안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기도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신뢰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돈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어느덧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시가 돼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이 신뢰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이 목적으로 만드신 과정인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 자체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나오지만 무슨 공식이 적용이 됩니까? 약할 때 강하다는 공식이 바울에게 적용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공식이 되어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 우리는 약할 때 쓰러져 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공식은 약할 때 강해지는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함이라는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 약

함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신뢰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신뢰가 생기면서 어떤 약함이 내게 존재해도, 어떤 고난이 엄습하는데도 항상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무엇이나?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가시도 어떤 돈의 문제도 사람도 세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결국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것은 어떤 도 닦는 결과로 주어진 만족감이 아니라 지금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 이런 가시를 통해서 인간은 뭐든지 편하면 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과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육적인 편안함을 갖는다고 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깨지고 박살나고 더 이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만이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모든 것이 잘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좋은 거다. 착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천 년 동안 누구나 그렇습니다. 언제 만나느냐? 인생을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처절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합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고난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기 때문에 육체가 가진 안일함 가운데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의 문제도 지금 육체도 편안하고 영으로도 한번 해보자, 이것이 다 문제인 것입니다. 육체도 편안하고 영도 한번 편안해 보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일해 본적이 없으십니다. 육을 신뢰하는 만큼 영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을 추구하는 만큼 영으로는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전혀 소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답은 그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워치만니가 자기 책에 쓴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배를 타고 강을 지나고 있는데 강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 바위를 어떻게 해주랴?" 워치만니가 움츠려 있자 "이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이 바위를 넘어서는 강물을 넘치게 해주랴?" 어떤 것이 편합니까? 그 바위를 넘어서는 강물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가시를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시를 덮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시를 뽑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좇았습니다. 사람 못살게 굴면 때려줘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려면 그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고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고난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은혜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신뢰 관계를 가지고 철저히 전혀 의심 없는 관계, 다니엘처럼 사자 굴에 들어가게 돼도 "나 들어갑니다." 이런 철저히 하나님과 의심 없는 아주 완벽한 신뢰의 관계, 멋있잖아요? 창조주와 이런 신뢰의 관계를 갖는다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문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창조주와 신뢰 관계가 된다면. 제가 청와대 나타나면 문이 짹짹 열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통령과 저는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가면 문이 짹짹 열리게 되

어 있습니다. 창조주와 가면 짝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 볼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하나님, 가시를 주십시오. 가시를 주셔서 나도 이런 영광을 보게 하십시오.” 그런데 앞에서 말했지만, 가시 그 자체가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고난을 받으면서 강해지는 존재라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목적입니다. 나는 고난 받을수록 강해진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거나 고난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부드럽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이런 모든 일하심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이 계속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해결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고난 그 자체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포기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며 그리고 은혜의 분량이 훨씬 커지면서 나는 철저히 주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과 이 모든 신뢰성 속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 사단의 사자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것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예수님의 이런 가시 속에서 서로가 믿어주는 신뢰 관계에 있어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지만 “야, 대로마야, 야 지옥의 모든 권세들아, 시간 없다. 한꺼번에 덩벼라.” 이런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소냐.’ 철저히 주님과 신뢰 관계, 가시를 주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그것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철저한 신뢰 관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없으면 “에이 하나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조금만 고난당하면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전부 힌두교 예수를 만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신뢰하는데 도대체 그 주님의 신뢰를 여러분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신뢰를 이제 받아들여보세요. 이 하나님이 나를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이 신뢰의 관계.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약함 이꼴(equal) 능력이라는 공식이 바울에게는 늘 있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공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다, 나를 누가 뭐라고 그래, 상관없습니다. 약함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약함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은 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 자체를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가진 것으로 상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그 모든 약함 속에서 바울을 당신의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멋있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공짜로는 안 됩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신뢰 관계입니다. 가시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가시를 두고 가시를 문제 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커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미친놈입니다. 이런 가시를 가지고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미친놈이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의 원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주님과 이 신뢰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최상급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 모릅니다. 인생 가시를 가지고 무슨 인생도 아닙니다. 이 막수 목사님처럼 맨날 머리에 바늘 찔러서 피를 쪽쪽 흘리고 거지 중에 산 거지처럼 하고 오니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그런데 “헤헤” 하고 웃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그 영광이 바울의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지리 공상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범상치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바울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 시대 모든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는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영광이 바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해 볼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 땅에서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광은 뒤에 나오지만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나? 바울처럼 이렇게 엄청난 가시를 주고 살게 하는 것은 바울이니까 가능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바울처럼 엄청난 가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주고 살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가 결국 여러분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잘못 다루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분의 신뢰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그 고난을 잘못 처리해서, 그 아픔들을 잘못 처리해서 패역한 놈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기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나가면서 그 은혜를 내 보상으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십자가이고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없이는 모두 다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더 주세요 하나님!” 내 실존, 내 삶에 대한 은혜의 부분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의 신뢰성을 잃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재는 만 원 가졌는데 왜 나는 천 원밖에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처리해서, 신뢰를 잘못 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와 환난과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작든 크든 이 십자가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인생 가운데 자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인생의 끝은 전부 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몰려오는 고통스런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진짜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이고 돈에게 얽매인 것 세상에 얽매인 것이 인생 말년에 다 찾아옵니다. 인생을 자꾸만 하나님과 바울처럼 신뢰성을 가지고 살면 전부 인생은 점점 자기가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초월해 버립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런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고 전혀 자유해 버립니다. 돈, 이것 말해서 뭐합니까? 가장 생 기초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계속 말 년에 갈수록 돈 때문에 인생 고달파 집니다. 지금도 보세요. 맨날 노후 대책한다고 사람들 난리 아닙니까? 노후 대책한다고 노후 대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잘 키우면 뭐 잘해주겠지? 웃기지 마세요. 하나 키워놨더니

가서 결혼해서 하나 또 달고 오네. 또 달고 오고, 또 달고 오고... 자식이 뭘 해줄 것 같습니까? 웬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식한테 뭘 바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치기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풀어내고 오직 나와 주님과만 영원한 관계이고 그 신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인생은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심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사실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의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사니까 그렇게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처럼 그런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과 이렇게 은혜의 분량이 요즘 중국에 싼샤담에서 물 나오는 것 봤습니까? 초당 몇백만 톤씩 품어대듯이 그런 은혜의 분량이 내게 엄습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시가 무슨 소용이나? 주님 나는 죽어도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바울은 이 가시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말하는 모든 연약함, 말 못하는 것, 너 히브리인이냐,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냐, 이런 모든 것들에 이런 공식이 적용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약함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으로 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했지만, 머리 나쁘냐, 그래 나 머리 나쁘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야, 너 금수저 아니구나. 이것 흑수저, 가문도 지지리 궁상" "그래 나 지지리 궁상이다." 그랬더니 왕의 가문이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막힘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론입니까? 이론 아닙니다. 점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함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이렇게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에서도 기근이나 칼이나 궁핍함이나 돈이나 사람이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 인생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영적 블랙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와라! 다와. 사람, 돈, 기근, 칼이나 다 와라. 다 상관없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자유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은혜의 분량이 이제 거기까지 된 것입니다. "다 와라. 귀신 시간 없다. 다 와라. 대로마 다 와라." 그러니 당당하게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겁니까? 로마 황제, 상관없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뭐든지 다 담아버릴 수 있는 영적 블랙홀, 다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과한 사람은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한들 뭐가 있으며, 세상이 뭐라고 한들 뭐가 있으며, 무엇이 있다 없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과 사는데, 그분이 나를 신뢰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 주님 만나서 바울의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장가 안 갑니다." 이러면서 제가 큰소리치고 그랬는데 우와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 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쉐키나'입니다. '장막을 삼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쉼이나,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머문다.'는 것은 바울이 무슨 의도로 쓴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이 주신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족한 은혜를 받고 사는 이 모든 영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에게 비친 얼굴의 영광은 잠시면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 안에 임한 이 영광은 잠시면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난이 되었든 가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주님과 이 관계 속에서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그분과 이런 신뢰를 가지고 교제하는 모든 이 영광은 이제 영원한 영광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뭘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고 그리고 그런 고난을 해결하시기보다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것들을 주님과 신뢰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애가 3장 28절에 보면 그 고난을 주님께서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Impose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의 이 고난이라는 가시라는 것은 바울 혼자 감당해야될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짊어지면서 그분과 함께 서로 신뢰를 통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은혜를 주시고 "바울아, 힘내라. 바울아,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impose, 같이 주님이 바울의 짐을 지고 같이 가시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시는 이꼬르(equal) 영광이 되는, 참 하나님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저것 저러다 죽는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더 영광됩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더 능력이 있어 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라고 말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좋아, 세상은 망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좋아, 세상은 망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영광으로 사용하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멋있잖아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사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 영광을 가져야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바울이 고통을 기뻐하는 sadist입니까? 그것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바울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가진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죽었으니까, 죽는 것은 영광입니다. 때려, 영광이야. 감옥에 가도 영광이야. 궁핍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분이 주셔. 안 주셔도 상관없어, 금식하지. 그러니 바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생명처럼 분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주님과 이 어마어마한 신뢰성이 확립되면 여러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의 분출이 고난이 와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더 사람이 견고해 집니다. 옛날에 에녹이 이야기했지만, 에녹이 죽은 영안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는데 애의 머리가 터져 죽은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도 그 순간에 떨리고 두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살아라. 살아라.” 저도 세 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두시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확 오려고 그러는데 저와 김 경은 전도사와 동시에 똑같이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시간부터 열방 교회에 에녹이 장례식은 기쁨과 은혜로 충만했던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한 사람도 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김 경은 전도사가 간증할 때 좀 울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성, 죽은 영혼 하나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이 거두셨다.” 이게 오기 시작하니 기쁨이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죽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에녹이 죽으면서 아르헨티나 집회 3억이나 되는 그 집회 비용도 제가 그 돈 받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돈 가지고 집회 안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신뢰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해 볼만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최소한 이론적으로 뭘지는 압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지 우리는 이제 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사치입니다. 이런 것에 쓰러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대답은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백이라는 힘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차피 인간은 어떤 분량은 감당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이것이 나약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뉘이는 것입니다. 왜 기도 못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기력합니까? 자신의 힘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사는 것도 모르고 사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고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질 때, 인간은 어차피 인간으로서의 나약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인적인 힘으로 사는 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 자신의 나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 우리에게는 신성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결정적으로 또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잘 먹고 잘살고 소위 잘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저는 이 공식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공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공식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어떤 풍랑과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어떤 부당한 요구가 오더라도 나는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 나약함 속에 쓰러지지 않는 자입니다. 왜? 주님의 강함이 오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오기 때문에.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것이 끝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인간의 나약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도

이 공식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이 공식이 내 인생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약할 때 강해지는 이 공식이 적용되게 하소서. 아주 인격화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가 인격화되게 하시옵소서. 곤고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것들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분량의 은혜가 날마다, 그 주님의 나를 향한 신뢰성, 주님이 나를 신뢰하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이 신뢰가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때가 그렇습니다. 이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이 공식이 이제 적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세상에 원하는 것에 의해서 놀아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영광스런 왕의 자녀임을 믿게 하여주옵소서.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충분히 족한 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남다른 은혜가 이전과는 다른 은혜의 강물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이 시간 종이 안수할 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약함이 강함이라는 이 승리의 공식을 인격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죽지 않고 능히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주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불행한 자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위해서 죽을 때, 우리의 육체의 빛을 다 치렀기에 우리는 육체의 빛 때문에 죽지 않는 자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 하찮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런 존재, 당신의 목적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뢰이며 당신이 신뢰하는 이 신뢰를 나도 그 신뢰를 드리오니 하나님, 창조주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존재가 혁명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게 하소서. 존재 혁명, 존재 혁명,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 혁명, 완전한 존재 혁명으로 살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승리의 공식 가운데 완전히 녹아지게 하소서. 십자가가 인격화되게 하시고 결코 우리는 무지랭이 같은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외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이 계속 하나님의 공간을 끌어당기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스런 시간과 공간에서 주님과 날마다 같은 임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